수당 정정화 여사의 일대기 「치마」

8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의 꽃이며 상해임시정부와 고락을 같이 한 수당 정정화(1900-1991)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치마」가 공연된다.

상해임시정부의 안살림을 꾸려가며 독립자금을 위해 압록강을 6번이나 넘나들었던 정정화 여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정정화 여사의 원작 「장강일기」를 토대로 극화한 이번 작품은 탄탄한 연출력으로 동아연극상 작품상 및 연출상을 수상한 윤우영씨가 연출을 맡았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역사적 내용을 정정화와 형사의 긴장감 넘치는 갈등과 추적을 토대로 스펙터클하게 재현했다. 상해와 중경의 암울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무대와 양자강을 건너는 배 등 현장감 있고 스케일 큰 무대를 배경으로 한민족 특유의 끈질긴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그려낼 예정. 백범 김구선생이' 한국의 잔다르크 라고 칭했던 수당 정정화 여사는 국가보훈처가 정한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다.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766-8889)

" 라스카루 - 남 "현대무용단의 내한공연 「오감」

현대무용의 메카 프랑스의" 라스칼루 - 남 "현대무용단의 내한공연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라스칼루-남 "무용단은 재불무용가 남영호와 프랑스 무용가 프랑수와 라스칼루가 창단하여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단으로, 남영호씨는 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과 교수인 남정호, 마임배우 남긍호씨와 함께 삼남매' 남트리오 "로 유명한 무용가. 이들이 이번에 선보일 작품 제목은 「오감」. 「오감」이란 제목 그대로 다섯가지 감각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 프랑스 선진무용방법론과 동양적 감성이 새롭게 만났다. 독특함은 이 작품을 끌어가는 방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프랑스 향수 전문가 진 맥스 이스틴 Jean Max Estean이 이 작품을 위해 제작한 특별한 향기가 공연 내내 무대와 객석에 뿌려진다. 관객들은 향기를 통해 상상 속에서 만족, 기쁨, 불쾌함 등 그 나름대로의 언어를 느끼며 후각과 연결된 무용가들이 펼치는 무용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이번 작품은 현지 스ㅌ이 제작한 무대, 의상, 소품, 음악, 조명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자연적인 빛깔을 이용하여 작품을 따라가는 조명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효과, 신체과학이 주는 시적이고 즉흥적인 안무가 세련되고 독특한 무대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8월 17일-19일까지 ☎764-8760)